

---

Vol. 8. 2023 봄과 여름 고창!

---

## 문화를 읽는 창





소식지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새로운 창(窓)을 말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이슈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 쓰는 고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병바위의 모습으로  
주변 풍광을 압도하는 장엄한 멋을 지니고 있다.

펴 낸 날 2023년 07월 25일  
펴 낸 곳 (재)고창문화관광재단  
펴 낸 이 심덕섭  
책임편집 안종선  
기획 윤여준, 황지원  
편집 윤여준 | 스튜디오 쥬쥬베  
교정교열 김영근  
디자인 이아모 | 스튜디오 실버라이닝  
등록일 2020년 07월 21일  
등록번호 제고창-바-00100호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361  
전화 063-561-1110  
팩스 063-561-5556  
홈페이지 www.gctf.or.kr

ISSN 2733-9971

<고창! 문화를 읽는 창>은 (재)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외부 필자의 글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의 도시, 고창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창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7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창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부심과 함께 우리의 보물을 오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널리 발전시켜 나아갈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고창과 세계유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을까요?

이번 소식지에는 고창의 세계유산을 더욱더 제대로 알고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고창의 멋을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고창의 즐거운 세계유산 생활을 위해!





관점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눈에 보기 04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별자리, '고창칠성' 완성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 06
	지금, 당신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란 무엇인가요?
	직접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세계유산 12
	신선의 칠링 스팟, 고창의 세계지질공원 병바위와 반암마을
	고창 역사툰 - 동학농민혁명 편 18
	고맙습니다. 용기내어 주셔서
대화	포커스인 인터뷰 22
	고창농악, 평생하고 싶어요
발견	고창 문화·역사의 발견 28
	경계도 차별도 없는 소리의 세계, 판소리

고창 세계유산 주변 먹거리 32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옆 맛집·멋집
뚜벅이 특파원, 걸어서 고창 속으로 35
고인돌부터 고창읍성까지
시티 투어 버스타고 고창 한 바퀴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고창 여행 40
너와 함께 걷는 여행, 고창

소식	문화진흥팀 수기 44
	고창문화도시 살림, '3개월'
	하반기 일정 46
	고창문화관광재단 2023 하반기 행사 캘린더
	지역문화 우수사례 선정 48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전국 우수사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별자리, ‘고창칠성’ 완성되다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선운산을 비롯한 지역의 명소 13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며, 고창은 국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가 되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자리처럼,  
고창을 아름답게 빛내는 ‘고창칠성’을  
한눈에 확인해 보자.

## ⑦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2023)

-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 고창
-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185건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 1894년 무장기포 당시 봉기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무장포고문과 더불어 취의록, 거의록 등 3건이 고창의 기록물

## ⑤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2021)

- 부안면, 해리면, 심원면에 위치
- 계절에 따라 펼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로 퇴적 양상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곳
- 해안을 따라 모래나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인 쉼니어가 형성되어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

## ⑥ 세계지질공원 (2023)

- 멋진 지질 경관 특성을 보여 주며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
- 선운산, 병바위, 고인돌군, 명사십리해변, 구시포 가막도, 고창갯벌 등 지역의 명소 13곳 지정
- 원생대부터 신생대 제4기까지 화산암과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질·지형의 발달 과정을 관찰 가능

## ③ 생물권보전지역 (2013)

-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등재
- 대표 보전지역인 운곡람사르습지는 한때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로 공급되며 폐경지가 되었으나 이후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치유하여 복원한 의미 있는 자연

## ② 인류무형유산 판소리 (2005)

- 우리나라 대표적인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의 고향
- 진채선, 김소희 등 고창의 명창을 기념하고 판소리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고창판소리박물관
-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신재효판소리공원

## 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2000)

- 우리나라에서 단일 구역으로는 가장 큰 고인돌 군집
- 고창을 비롯해 국내의 고인돌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고창고인돌박물관
- 447기의 다양한 고인돌이 모여 있는 고창고인돌유적지

## ④ 인류무형유산 농악 (2014)

- 영광, 무장(고창), 장성, 함평 지역에 발달한 영무장농악의 계보를 잇는 고창농악
- 호남우도농악의 성격을 충실히 지니면서도 다양한 잡색놀음이 발달
- 14개 읍·면의 농악단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수생들을 꾸준히 배출 중



## 지금, 당신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란 무엇인가요?

지역에 대한 관점과 태도 전환으로서의  
세계유산도시

글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 사진 고창군청

고창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다. 그도 그럴 것이 고창은  
고인돌 유적(세계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무형문화유산),  
고창 갯벌(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하여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최근에는 고창  
선운산과 병바위, 갯벌 등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됐고,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 등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창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놀랍고 고마운 일이다.



### ‘7관왕’ 달성 이후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유네스코는 스스로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  
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  
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많은 사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세계  
적인 관광지 지정이나 지역·도시 홍보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인류의 문명에 대한 깊  
은 고민과 협력을 담고 있는 개념이자 제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세계유산협약)’은 이집  
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을 통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집트는 전력 사정 개선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나일강 유역에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로 인해 이집트  
아스완 지역은 물론 이웃한 나라인 수단의 누비아 계곡에  
남아 있던 고대 누비아 유적이 물에 잠길 운명에 놓이게 되  
었다. 이집트와 수단 정부는 유적을 보호하고자 1959년 유  
네스코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유네스코는 곧바로 세계적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  
을 전개해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운동 기  
간에 약 8천만 달러가 모금되었고 약 50개국이 모금에 참  
여하였다.<sup>1)</sup>

이집트 누비아 유적 보호 운동에서 시작된 유네스코와 세  
계 시민들의 협력은 단순히 세계유산 보호에만 머물지 않  
았다. 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화된 서구 근대 문  
명의 산업화와 개발주의에 대한 반성을 의미했다. 지구 곳  
곳의 마을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파  
괴되었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바로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  
에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과 환경’ 유엔  
회의가 개최되었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것이다.

당시 ‘스톡홀름선언’의 1항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가속화  
되면서 이 지구에서 인류의 길고 험난했던 진보는 인간이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heritage.unesco.or.kr>

무수한 수단과 전례 없는 규모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자연적이든 인  
위적이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양 측면은 인간의 안녕과 기  
본권의 향유, 생존권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  
고 강조하고 있다.

### 기후위기, 인공지능, (초)고령사회 등 더욱 심각해진

#### 인간 문명의 과제들

스톡홀름선언이 담고 있었던 인간과 환경 그리고 기술에  
대한 우려는 이제 인류의 심각한 현실이 되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는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마  
음껏 사용했다. 지구 곳곳에서 틈만 나면 돈과 권력을 위  
해 개발을 반복했고, 개발은 수많은 자연유산(생태)과 문  
화유산(지역문화)의 파괴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 결과 지  
금 인류는 인간의 생존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명사  
적인 다중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다. 인간 중심의 맹목적인  
개발주의가 생태계의 위기(기후 위기), 질병의 위기(코로나  
팬데믹 등 슈퍼바이러스), 인구 구조의 위기(고령화와 지방  
소멸), 인간 정체성의 위기(기술 과잉과 인공지능) 등 다층  
적인 재난사회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라는 접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지구화된 재난사회 속에서 이제  
는 인간 중심의 맹목적인 개발·경쟁과는 다른, 인간과 환경  
의 관계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접근과 문화가 절실하다. 유  
네스코 세계유산도시는 지역의 자원을 자랑하거나 세계적  
인 관광 명소로 인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네스코 세  
계유산도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과 도시에 접근하  
는 다른 관점이자 태도다. 이제 고창도 ‘유네스코 7관왕’이  
라는 타이틀이나 홍보 문구가 아닌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시로서의 본질적인 질문과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때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전체를 상호 연결된

#### 생태계이자 관계망으로 이해해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사례에서 시작해 보자. 고창  
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고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지구 표면의 5%에 불과한 생물권보전지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시 “산업화와 발전이 강조되던 1970년대”에 대한 성찰과 대안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자 제도다. 유네스코는 일방적인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속에서 자연 보전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제도를 만들었다. 유네스코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곳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학습장’”이라고 강조한다.<sup>2)</sup>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map.unesco.or.kr/mab>

이를 위해서는 고창 전체가 생태 친화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생물권 보전은 갯벌, 습지, 지질공원 등 개별 장소의 생태성을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창이라는 지역·도시 전체가 상호 연결된 인간과 비인간(자연, 동물 등) 사이의 관계망이자 생태계라는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또한 생물 다양성은 물론 문화 다양성의 환경과 협력 체계가 동시에 형성돼야 한다.

더 나아가 고창이라는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관점과 태도 자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오직 인간을 위한 자원이자 개발 대상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눈앞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을 마구 개발하고, 더 많은 고민과 대화를 귀찮은 민원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변화시키



→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세계유산도시 혹은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 생태적이고 통합적인 도시 계획 정책과 주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지금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대다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치적, 성과로만 접근해 왔을 뿐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앞에 초고층 아파트 공사를 하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다. 시민들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중요성과 자부심은 있지만 자신의 일상과는 무관한 관광지 혹은 지루한 문화재 정도로 치부하기 일쑤다. 심지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마저 존재한다. 많은 전문가, 주민들, 행정기관 등의 노력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지만, 그 취지와 가치는 아직도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보여 준 흐름과는 달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 고창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네스코 7관왕도 좋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만나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고창 사람들의 일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끈끈히 연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창 전 지역이 서로 연결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 지역·도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행정이나 선거의 시간 이 아닌 고창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시간과 지속성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관한 좋은 사례로는 미국 포틀랜드의 도시 계획 정책이 있다. 포틀랜드는 세계적인 병참공장이자 자동차 산업 도시로 번성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포틀랜드는 시와 연방 정부의 통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1979년 도시성장경계선<sup>UGB, Urban Growth Boundary</sup>을 수립했다. 지금까지 5년마다 지역 인구와 인프라, 녹지와 생태계 보호, 쓰레

기 처리와 대중교통 시스템 등 도시 전체의 생태계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 세계에서 주목받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거듭났다. 포틀랜드의 도시성장경계선 정책처럼, 세계유산도시이자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고창만의 생태 문화적이고 통합적인 중장기 도시 모델과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 시민력에 기초한 도시 운영 역시 세계유산도시이자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의 고창 모델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유네스코의 모든 사업과 정책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시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다. 아니,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자체가 거버넌스라고 강조한다. 유네스코는 19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총회와 58개 선출국 대표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라는 두 개의 거버닝 바디<sup>governing body</sup>를 축으로 약 50여 개의 크고 작은 거버넌스 체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도시나 생물권보전지역과 같은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이 독점적인 권력이나 행정 주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고창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더 이상 소수의 뛰어난 지도자나 전문가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이다. 이는 더 많은, 다양한 집단지성과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한 민주적이고 심지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시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이다. 지금 당장은 다소 느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고창의 미래에 있어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는 선택적인 도구가 아닌 필수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 다양한 고창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는 세계유산도시나 생물권 보전지역은 결국 허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신선의 칠링 스팟 *Chilling Spot*, 고창의 세계지질공원 병바위와 반암마을

글 윤여준 사진 박기덕

술 한잔 기울이며 느긋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다면, 당장 달려가고 싶은 칠링 스팟\*이 있나요? 어느 한 신선에겐 고창의 반암마을이 그만의 칠링 스팟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선도 인정하고 유네스코도 인정한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병바위와 반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 신묘한 신선의 놀이터, 병바위와 반암마을

#장엄한풍경 #신선설화 #탐방로

주진천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병바위와 반암마을의 첫인상은 사방을 돌아보아도 어디 한 곳 장엄하지 않은 곳이 없는 기묘함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시야를 압도하는 멋진 바위산이 서해로 흘러가는 주진천과 이루는 조화는 아름다움을 넘어 신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병바위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처럼 커다란 병이 거꾸로 꽂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인의 엄지장갑 같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 모양과도 닮은 것이 범상치 않은 비주얼이었으니까요. 병의 생김새가 그렇듯, 병바위는 하부가 상부보다 얇은 편이라 얼핏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견고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병바위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작디작은 인간의 노파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뜻의 영단어 칠(Chill)에서 나온 말로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며 즐기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병바위가 위치한 반암마을엔 재미있는 신선 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마을의 결혼식이 있던 날, 선인봉에서 신선이 말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신선이 옥녀의 거문고 소리에 빠지며 술맛에 잔뜩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잔을 밝히면서까지 술을 마시던 신선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술상을 발로 차 버리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선인취와혈 仙人醉臥穴’이 되죠. 신선이 발로 찬 술병이 거꾸로 꽃힌 게 병바위이고, 술상은 굴러 소반바위가, 가야금 받침대는 탄금대바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선이 타고 내려온 말의 안장은 말안장바위가 되고, 술에 취한 신선이 다음 날 밤까지 깨어나지 않자 말이 울어 깨운 곳이 마명 馬鳴마을이 됩니다. 인간의 결혼식에 놀러 온 신선이 하룻밤 사이 남기고 간 흔적이 꽤나 멋집니다.

병바위에서 반암마을을 끼고 돌아 마명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엔 고즈넉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걷다 보면 소나무 숲과 대나무 숲을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탐

방로는 복분자풍천장어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신선이 즐긴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은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신선이 왜 이곳에서 술맛에 흠뻑 취하게 되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다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화산암체 #타포니구조

1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알려진 기암괴석인 병바위는 덩어리 모양의 유문암이 상부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병바위의 상부에는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구멍인 타포니가 발달해 있습니다. 하부는 상부와 다르게 화산쇄설물인 화산재와 암석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어 수평적 층리를 지니고 있고요. 이렇듯 상부와 하부가 뚜렷히 다르면서 타포니와 같은 진귀한 풍화 현상도 품고 있는 병바위의 독특한 표면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새로 조성 중인 계단식 탐방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게 병바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의 긴 뿌리와 그 사이로 보이는 병







→ 두암초당 전경

바위의 지질 표면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신비로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인이 보아도 범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는 병바위는 그 모습의 진귀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UNESCO Global Geoparks, UGGp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고자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곳을 뜻합니다. 전 세계 단 195곳만이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병바위를 비롯해 선운산, 소요산, 구시포 가막도 등 고창의 13곳이 포함된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 등재된 거지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2013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충실히 보존해 온 고창은 지난 2017년 국내 9번째로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지질명소의 보존과 더불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보여행길을 만들고 지질공원 탐방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세계지질공원 등재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 지극한 효심의 바위 굴 누정, 두암초당

#바위를깎는효심 #한폭의동양화 #김소희명창의덕음

고창군에서 잘 가꾼 탐방로를 따라가다 보면 바위에 콕 박힌 것처럼 보이는 신기한 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경에서 바라보면 언뜻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 이 정자는 ‘두암초당’입니다. 영모마을 뒤편에 위치한 전좌바위 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부모를 여의고 시묘살이를 했던 형제, 호암 변성온 壺巖 卞成溫, 1530~1614과 인천 변성진 仁川 卞成振, 1549~1623의 지극한 효심을 기억하기 위해 후손들이 지은 정자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날아와 바위산에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위 밑을 파고 그 안에 구조물을 끼워서 만들어졌습니다. 바위를 깎는 효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두암초당은 창건 이후 훼손되었으나, 5대손인 변동빈이 1815년

에 증건한 후 여러 차례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정자같이 보이지만 앞면이 세 칸이나 될 정도로 일반 정자보단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엔 작은 온돌방과 마루를 깔아 잠시 머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꾸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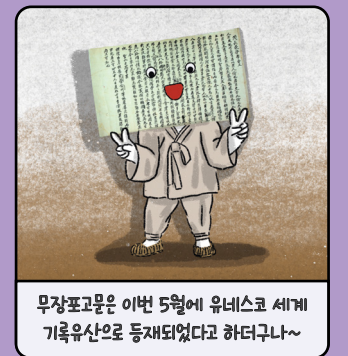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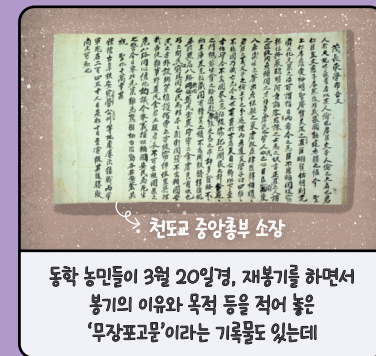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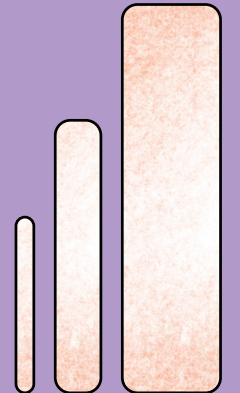
거대한 바위산과 그 가운데 위치한 정자, 그리고 곧게 뻗은 소나무까지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이곳은 김소희 명창이 득음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이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납득이 됩니다. 장엄한 바위의 기운과 효심으로 채워진 공간의 따뜻함, 그리고 마을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우러지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이곳에서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계가 인정한 병바위와 반암마을, 이곳은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치유가 함께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세계지질공원으로도 등재되었으니 더 오래 그리고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길 기대해봅니다.






# 고맙습니다. 용기 내어 주셔서 나와길 그림








### 만화에 나오는 역사 공부



→ 고창 무장기포지



→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고종 31년(1894)에 동학교도였던 녹두장군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운동입니다. 당시 농민들은 60여 년간 지속된 세도 정치로 극에 달한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정치 기강 아래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해요. 또한 외세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그에 대한 위기 의식도 함께 커져만 갔고요. 그러다가 결국 탐관오리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일어나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동학농민혁명은 1여 년간 30~40만 명의 희생자를 내며 끝났지만,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일어난 최초의 민족운동으로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장포고문은?**

무장포고문은 고부 농민봉기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전라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낸 격문으로 공식적인 농민봉기 선언문입니다. 내용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해,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 살기를 맹세한다”로 이어집니다. 이 포고문이 전국에 퍼지며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대회 포커스인 인터뷰

→ 왼쪽부터 김미정, 오해선, 정현지

## 고창농악, 평생 하고 싶어요

인터뷰 정리 윤여준 사진 박기덕

평생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빠르게 경험하고  
손쉽게 마음을 옮기는 시대에  
평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고창농악을  
전수받으며, 함께 팀을 이루어  
부안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한  
‘고스란히’ 팀의 대표단 3인방  
김미정, 오해선, 정현지를 만났다.

### 고스란히와 함께 고스란히

‘고스란히’는 어떤 팀인가요?

**정현지(이하 현지)** : ‘고스란히’는 부안 전국농악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결성된 팀이에요. 총인원은 41명 정도 되고, 고  
창농악 전수생들 중 그해에 대회를 나갈 사람들이 모여 만  
든 일종의 TF팀 같은 거예요. 저희가 처음 생긴 팀은 아니  
고, 고창농악전수관에서는 꾸준히 저희 같은 대회 준비팀  
들이 꾸려져 왔어요. 이전엔 ‘고색창연’, ‘고농축’ 등의 팀이  
있었고요. 저희도 앞선 선배들처럼 저희의 팀을 만든 거죠,  
‘고스란히’라는.

‘고스란히’의 뜻이 ‘온전히 가지고 간다’거든요. 저희가 고  
창농악을 보존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역할까지는 아니지  
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고창농악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  
다고 생각해요. 선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받은 굿\*의 모  
양이 있듯이 저희도 다음 세대에 그 전통과 의미를 고스란  
히 넘겨주고 싶어요.

**김미정(이하 미정)** : 사실 이름 정할 때 재밌는 후보들이 많  
았어요. 고창농악을 하는 팀이다 보니 ‘고’자를 넣어서 이  
름을 짓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로 시작  
하는 단어를 찾아 보니 ‘고슴도치’, ‘고양이’ 등의 후보가 나  
왔어요. 그러다 그중에 ‘고스란히’가 가장 저희가 말하고  
싶은 바를 잘 담고 있고, 또 어감과 느낌도 비슷해서 선택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대회에서 이름 붙릴 때에도 그럴  
듯하고요!

고스란히 팀에서 각자의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오해선(이하 해선)** : 오늘 모인 세 명은 일종의 대표단이에  
요. 전수관에서 만나 이렇게 팀을 꾸리게 되었어요. 저는  
팀에서 대회를 나가거나 단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행정 업  
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문서 작성이나 공간 및 장비 대여  
등을 전수관이랑 소통해 나가며 조율하는 역할을 해요. 회  
계도 담당하고 있고요. 굿할 때는 팽과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정** : 저는 해선과 함께 팽과리를 치고 있고요. 팀 맨 앞  
에서 굿을 이끄는 ‘상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회에 나갈 때  
판을 짜는 등의 큰 구성을 그리는 역할도 맡고 있고요. 또  
공식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자존감 지킴이를 맡고 있지 않  
나 싶어요. 팀원들의 이야기 들어 주고, 같이 고민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사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할 친구들을 모으고 일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  
죠. 저 역시 팀원의 멘탈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함께  
할 팀원을 모았다 보니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 같아  
요. 기왕 하는 거 더 즐겁게 하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  
겠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힘든 점은 없는지, 연습은 잘되어  
가는지 등을 체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더 재밌는 환경을  
위해 분위기 메이커도 자처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굿판에서 첫 번째로 소고를 이끄는 역할인 ‘수법고’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고창굿은 고창농악과 동일한 뜻으로, 인터뷰어의 말맛을  
살려 혼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사진 제공 (사) 고창농악전수관



## 고창농악, 그 자유롭고도 깊은 세계

### 고창농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미정** :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 부안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러 갔을 때, 저희를 지도해 주신 이광후 선생님이 “고창농악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똑같이 물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호남우도농악의 중간 지역인 고창농악은 간이 잘 맞고...” 이렇게 정석대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고창농악은 전수생이야”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전수생이 많은 편이고, 또 전수생들끼리 단순히 악기적으로만 접근해서 농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농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인연을 이어 가며 자연스럽게 고창농악을 이어 가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고창농악의 특징은 정말 전수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현지** : 고창농악전수관에 가면 ‘굿, 사람, 삶’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전수받으러 가면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문구인데요. ‘굿’이라는 게 무속적으로 받아들이지기가 쉬운데, 사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마을의 잔치 같은 게 열리면 굿판이 함께 열렸대요. 그러니까 꼭 무속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굿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굿을 벌이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굿판을 여는 건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굿을 할 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경계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굿판을 벌이고 나면 사람이라는 게 굿에서 아주 큰 힘이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굿을 삶의 친구처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굿이 삶 속에 녹아 있었잖아요. 농사를 시작할 때도 하고, 보름에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 있던 거죠. 하지만 제게 굿은 악기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언젠가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는 취미 정도의 부가적인 감정이 더 큰 영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삶과 굿을 분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굿이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큰 의미가 없는 고민이거든요. 정말 고창농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굿이 삶이구나. 고창농악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삶에 스며든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

### 고창농악에서 전수생과 전수관을 빠트릴 수 없는 거 같아요. 고창농악의 전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선** : 고창농악은 1993년도부터 전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매주 80명 정도가 전수받으러 방문해요. 전수생 규모가 정말 큰 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고창농악의 전수는 다른 농악의 전수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질문이 많다는 건데요. 전수받으러 가면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춤을 추니?”, “너의 소리는 무엇이니?”, “그렇게 하는 게 왜 좋으니?” 등의 질문을 자주 하시거든요. 다른 농악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이게 전통이고,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이니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정해진 틀에 맞게 굿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하지만 고창굿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해 보고, 또 새로운 방식도 적용해 보면서 각자 자신만의 고창굿을



찾아가게 해 주시는 거죠. 재밌는 건 그렇게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 보면 결국 또 어느 순간 가장 정석에 가깝게 악기를 하고 춤을 추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 반문과 고민을 통해 왜 오랜 전통의 방식이 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미정** : 맞아요. 저도 고창농악의 전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유로움’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농악 전수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거든요. 해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가늠할 수 있던 건 선생님들 역시 고창농악은 “단순히 팽과리를 잘 치는 게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 고창농악을 배우러 왔을 땐 팽과리를 더 잘 치는 방법을 배워 가야지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는 팽과리를 이렇게 치는구나, 왜 그렇게 치는 게 좋니?”라고 물어봐 주셔서 스스로의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전수생들끼리도 더 친한 편이에요. 전수받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고민하다 보니 함께할 때에도

자신을 스스로없이 드러내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 그럼 처음부터 고창농악의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 첫인상은 어땠나요?

**현지** : 첫인상이라기보다, 고창굿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대학교 동아리에서 공연 전 악기를 배우기 위해 전수관에 오게 되었어요. 사실 그땐 농악을 배우러 간다는 생각보단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오게 된 것도 있었고요.(웃음) 그러다 2018년도에 ‘매굿’이라고 선달그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는 굿에 참여했는데, 한 집에서 아픈 배우자를 위해 절실하게 기도하는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악기를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의 경험이 단순히 악기를 하는 거를 넘어서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그렇게 고창굿에 빠져들게 되고... 저는 전수교육 참여 횟수만 50회는 되어요. 여러분 고창굿의 매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웃음)



**해선 :** 저는 전수관의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지금 보면 전수관에 연습동이라고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갔을 때가 그곳이 개관했을 때였어요. 연습동이 생기기 전에 갔던 선배들이 거기 가면 에어컨도 없고 짐통이라고 해서 잔뜩 긴장했는데, 연습동에 가보니 에어컨이 있어서 안도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뒤에 있는 숙소였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부터 들었어요. 더운 날 에어컨 없이 살다 보니 화요일쯤 되어서는 다 같이 콜택시 번호를 알아 놓고 그랬어요. 도망치려고요.(웃음) 저도 그쯤에 다신 오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그러고는 일요일날 돌아오는 차에서 다음 전수 신청했잖아요. 에어컨을 이기는 마성의 매력이 있던 거죠.

**현지 :** 에어컨의 변천사는 항상 전수관의 핫이슈예요. 해선이 다녀온 2016년까지 에어컨이 없다가 제가 갔던 2017년도에 에어컨이 드디어 생겼어요. 한동안은 시간제한 두고 하루에 점심, 저녁 시간이나 잠잘 때만 켜는 규칙이 있었는데, 조금씩 허용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젠 훨씬 쾌적합니다!

### 고스란히의 앞으로

**고스란히 혹은 고창농악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나요?**

**현지 :** 처음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고스란히는 대회 참가를 위해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대회가 끝난 그 이후의 고스란히에 대해서는 지금껏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 이 질문을 받고 “왜 고스란히가 꼭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했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41명의 인원이 함께하고 있지만, 모두가 필수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은 느슨하게 확장하고 수축하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팀이 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개인 일상이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다가도 어느 날 다시 그리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보자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사실 고창농악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단순한 취미 같지

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곳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한계에 부딪혀요. 악기가 안 될 때도 있고, 팀원들끼리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문득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방식을 고창농악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극복의 방식을 제 삶에도 적용하곤 해요. 그렇게 제 삶과 고창농악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게 노력하며 오래 하고 싶습니다!

**미정 :** 저도 현지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고스란히를 일회성 팀이 아니라 그다음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팀으로 이어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끼리 만나면 고민이 많거든요. 고창곳을 평생 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내 삶에서 고창곳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등의 고민도 자주 나누어요. 사실 저도 제 삶과 고창곳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걸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 다 잘 하고 싶고, 또 오래 하고 싶으니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현지 말처럼 고스란히를 꾸준히 이어 가서,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나누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선 :** 저는 미정이가 하는 고민을 작년 겨울에 했었는데요. 이광후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해선아, 평생 해야지. 평생 같이 처야지”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차피 평생 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아마 저도 취업하다 보면 직업 특성상 한동안 참여 못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일에 몰두하며 살다 잠깐 시간 날 때 고창 가서 전수 받고 오고, 그러다 더 나이가 들어 어느 시기가 왔을 때 다시 고창곳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고스란히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대신 저희 세 명처럼 고스란히를 끌고 나아가 줄 후배들이 새롭게 나와 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고스란히가 지금 인원에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팀이 되길 바랍니다!

## 고스란히 4행시



**미정 :** **고** 창에서  
**스** 스럼없이 만나  
**란** (난) 늘 여기에 있어  
**히** (히) 망을 나누자!

**해선 :** 저는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초성을 딴 4행시는 아니지만, 4행을 지닌 시인데요. 꽤 멋져 공유합니다!

**현지 :** **고** 스란히가 언제 어디서나  
**스** 근하게 만나서  
**란** 잔 기울이며  
**히** 히덕거릴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 스란히**  
너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영원히 기억할게.



## 경계도 차별도 없는 소리의 세계, 판소리

광대로 살기를 바란 진채선 陳彩仙

글 남하나 (독립기획자, 시각예술가)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 찬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오리정 정별후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봉양 글공부에 겨룰이 없어서 이르는가  
-「춘향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소리다. 개그 프로그램이나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말이다. 한이 서린 음율과 낮은 단어의 조화가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이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판소리 「춘향가」를 만날 수 있다.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 옥에 갇혀 불렀던 이 대목은 처참한 자기 모습과 소식 없는 입을 그리워하는 애달프고 고달픈 마음이 그대로 녹아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명창 임방울이 빼어나게 잘 불러 유성기 음반이 무려 일백만 장 이상 팔려 나가 ‘쑥대머리 신화’를 창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고전은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춘향가春香歌」, 「심청가沈淸歌」, 「적벽가赤壁歌」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과 더불어 서민들의 애환, 사랑, 역사가 담긴 이야기를 판소리의 본고장 고창에서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2023년은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이에 맞춰 5월, ‘신재효판소리공원’도 새롭게 조성했다. 판소리의 본고장답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군민들과 관광객들을 기다리는데, 영화 <도리화가>와 국악 뮤지컬 <이팝: 소리꽃>의 두 주인공인 판소리 개척자 신재효 선생과 최초 여성 명창 진채선에 대해서도 알 기회이기도 하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2003)

### 판소리의 역사를 다시 쓴 동리 신재효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를 뜻하는 ‘판’과 노래를 뜻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로서, 17~19세기 광대들이 장터, 잔칫날, 국가 행사 등에서 소리를 뽐내면서 서민들의 노래로 자리 잡았다. 무대에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 북 치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리를 내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소리꾼은 창 노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 주는 아니리<sup>1)</sup>와 풍부한 너름새 몸짓을 하는 배우이기도 하다. 이렇듯 판소리는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이야기를 통해 관객과 만나는 한국 전통 종합예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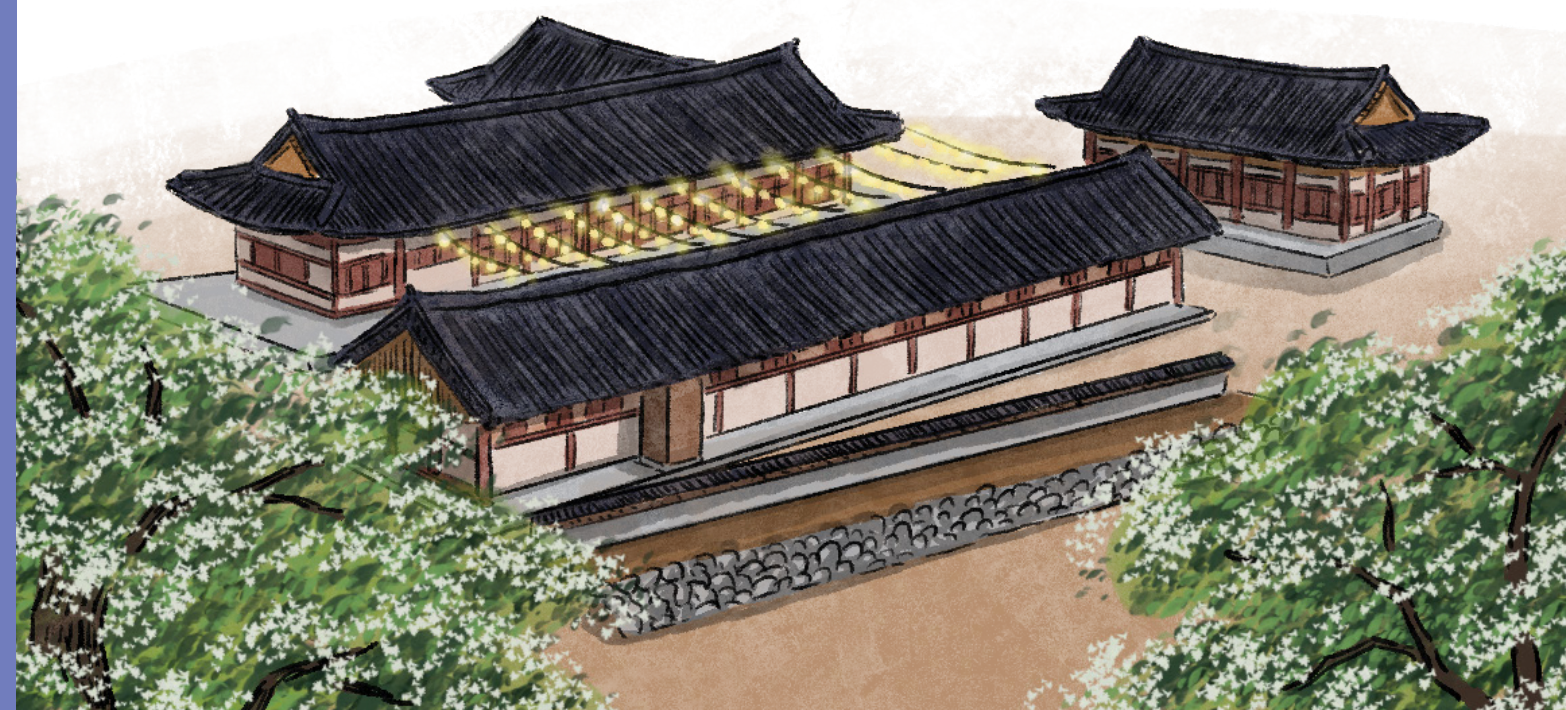
다방면의 예술성을 가진 판소리의 역사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을 말하자면 판소리의 계보를 정립한 ‘동리 신재효’ 선생이다. 판소리계의 신화 같은 존재로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 너름새라는 4대 법례<sup>2)</sup>를 마련했다. 또한 판소리의 이론적인 측면을 다룬 「광대가廣大歌」를 제작해 당대 명창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가 하면 「치산가治産歌」, 「십보가十步歌」, 「방아타령」, 「도리화가桃李花歌」 등 30편의 단가를 창

1) 4대 법례 : 인물치레(용모 출중), 사설치레(판소리 사설을 잘 다듬기), 득음(타고난 목소리), 너름새(춤이나 몸짓)

작해 널리 알리기도 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판소리 여섯 마당을 개작하여 기록한 것으로, 신재효 선생은 스스로가 명창이자 오늘날에는 연구자, 연출가로 판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뿐만 아니라 동리정사를 세워 소리 인재들을 키우고 남자만이 할 수 있던 판소리 세계에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을 발굴하여 세상의 편견에 함께 맞서 싸우기도 하는 등 판소리에 진심으로 생애를 바쳤다. 고창군은 현재 그 뜻을 이어받아 (사)동리문화사업회와 같이 판소리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인 ‘동리대상’을 시상하여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세계에 알리는 등 판소리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 판소리의 집합체, 신재효판소리공원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판소리를 일상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신설되었는데 바로 신재효판소리공원<sup>3)</sup> 동리정사이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신재효 선생의 이름을 가져와 ‘신재효판소리공원’이라 명명하였다. 현재 공원에는 신재효 고택의 사랑채를 중심으로 기존의 동리국악당, 판소리박물관, 판소리전수관과 함께 5년여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재현한 살아생전 신재효 선생이 머물던 안채 3채가 있으며, 연말까지 행랑채,







연못, 석가산이 완공될 예정이다. 안채 세 곳에서는 전문적으로 판소리를 배워 볼 수 있는 아카데미가 연중 진행되며 야외 공간은 공연장으로 변신해 올해 8월 중순까지 국악 뮤지컬 〈이팝 : 소리꽃〉 공연이 펼쳐진다.

### 세상과 정면 승부한 여성 소리꾼 진채선

진채선은 『조선창극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그녀의 이름 앞에는 ‘판소리 최초 여류 명창’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9세기 유교사회인 조선 시대에 태어난 진채선은 당골 무녀인 어머니를 따라 소리를 배우고 익혔다.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차별 없는 ‘소리’, 우리의 삶을 말하는 ‘소리’에 매료되어 당시 남성 중심 무대인 판소리계에서 소리꾼이 되기 위해 험난한 삶의 여정을 거쳤다. 여자는 안 된다, 여자라서 목소리가 작다, 여자라서 배에 힘이 없다 등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시 조선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특히 어머니는 그녀가 평범한 여성으로 좋은 곳에 시집가길 바랐지만,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리정사에 들어가 신재효 선생의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남성들 사이에서 뛰어난 명창으로 성장한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남장을 하며 활동하던 그녀는 1867년, 당시 집권을 이어 가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에 맞춰 개최한 ‘경복궁 경회루 낙성연’에 남장을 하고 등장하여 자신의 기량을 발휘한다. 여성임에도 웅장한 판소리 성음을 내고 그녀의 장기인 「춘향가」를 불러 단숨에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진채선의 설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기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막강한 권력의 존재인 흥선대원군이 경회루 낙성연에서 진채선이 여자임을 알고 운현궁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광대로 살기를 원했고 많은 사

람 앞에서 판소리를 하고 싶었던 진채선은 어쩔 수 없이 궁에서 살게 되면서 꽤 오랫동안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더불어 신재효 선생이 지은 「도리화가」는 제자 진채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단가로 알려져 있다.

스물네번 바람불어<sup>2)</sup>  
만화방창 봄이 되니 너풀너풀 날아든다.  
도화는 곱게 붉고 구경가세 구경가세  
희기도 흰 오얏꽃이 도리화 구경가세

- 신재효, 「도리화가」 -

결국 세상과 맞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소리꾼이지만 세상의 또 다른 벽에 부딪혀 새장에 갇힌 새가 되어 버린 구슬픈 새 진채선.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삶을 담은 공연을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고창에서 그녀가 지나간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만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진 장점을 살리려 노력했던 진채선, 편견 없는 시선과 믿음으로 함께한 동리 신재효 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판소리가 고유한 장르로서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소리는 경계가 없다. 누구든 말을 할 수 있듯이 누구든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것. 판소리를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올해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으로 여행을 떠나 신재효판소리공원에 방문하면 어떨까. 판소리의 발자취를 걸어 보며 직접 판소리를 배워 보고 진채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야외 공연까지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소리에 취해 소리 한번 뽐내 볼 수 있지 않을까?

멀리 보이는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드넓은 잔디, 멋이 살아 있는 한옥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인류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해 보길 바란다.

2) 당시 24살의 진채선을 도화에 비유하여 애절한 마음과 그리움을 담아 표현한 구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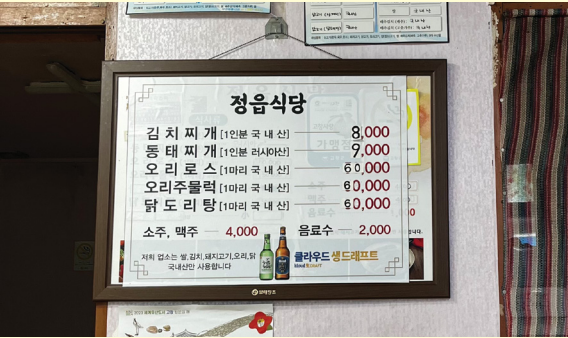
#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옆 맛집·멋집

마음까지 따뜻한 집밥 한상차림 식당 3곳 그리고 인근 카페 2곳

글/사진 육끼 (마을활동가)

신재효관소리공원 - 정음식당

소리꾼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부채를 짝 펼치듯, 밥상 위에 정성이 담긴 한상차림이 짝 펼쳐지는 한식 전문점, 정음식당. 밥을 공깃밥으로 주지 않고 대접에 가득 담아 주는데 제철 밑반찬과 생선조림, 김치찌개를 먹다 보면 왜 대접으로 주는지 이해가 된다. 무조건 기본 두 공기의 밥이 마법처럼 뱃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배부르게 가득 먹고 8천원을 낼 때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이다. 오리로스, 오리주물럭, 닭도리탕은 미리 2시간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사장님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말없이 수줍게 웃으신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 대신 음식으로 전해 주는 것만 같은 분위기. 신재효관소리공원 인근 전통시장 주차장 쪽에서 가면 더 가까우니, 전통시장에 주차하고 도보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한다.



주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62-10 / 영업시간 : 연중무휴, 11:30~19:00 / 전화번호 : 063-564-9806

세계지질공원 - 하늘구름미 카페



공기 좋은 곳에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브런치 메뉴를 먹고 싶다면 하늘구름미 카페로! 고창에서 브런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곳이 귀한데 그래서 그런지 주말마다 손님이 가득하다. 공기와 풍경이 좋다는 건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에 있다는 것. 그 발걸음이 고마워서 사장님은 브런치 시간대가 아니라도 재료만 있으면 직접 브런치를 만들어 준다. 카페는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 통로의 야외 자리도 인기가 많다. 내부 아기자기한 소품을 구경하고 고양이 두 마리를 만나는 재미도 쏠쏠. 아보카도를 넣은 연두커피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도 한번 맛보았다가 계속 홀짝이게 되는 매력적인 맛을 지녔다.



주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84  
영업시간 : 화요일~월요일(매주 수요일 정기휴무), 11:00~20:00  
전화번호 : 010-4431-0320

고인돌유적지 - 아산삼시세계

메뉴판이 없지만, 갈 때마다 테이블 꼭 차게 멋진 음식들을 내어 주는 집. 단골들의 입맛을 아는 사장님은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 상을 차린다. 이웃들이 재배한 재료를 사다가 반찬을 만든다는데 어쩐지 식당을 둘러보니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고인돌처럼 단단한 마음들이 모여 있는 식당. 김치찌개가 나오면 라면 사리를 꼭 넣어서 드셔 보시길. 국물의 감칠맛 덕분에 계속 떠먹게 되니까. 인근 공터가 있어 주차는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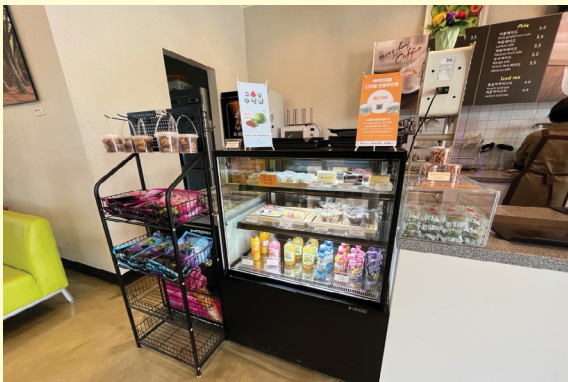


주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801  
영업시간 : 월요일~토요일(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09:00~19:00  
전화번호 : 063-563-7827



고인돌박물관 - 매산105

고인돌박물관에 가면 매산105 카페를 안 들를 수가 없다. 이 주변의 유일한 휴게 시설이기 때문이다. 고인돌공원처럼 넓고 쾌적한 이곳에 들어가면 카운터 뒤편 메뉴판에 다양한 음료와 간식거리가 풍성하다. 고민 중에 아마도 제일 즐거운 고민은 ‘오늘은 뭘 먹지?’가 아닐까? 이곳에서도 그 고민은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음료를 사장님이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직접 만든다고 하니 선택이 즐거운 만큼 어렵다. 고인돌공원에도 고인돌박물관에도 입구에 계산리 고인돌을 만나는 것처럼 이 동네에 방문할 때면 매산 105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박물관과 마주 보고 있으며 박물관이 쉬는 월요일은 이곳도 휴무이다.



주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5  
영업시간 : 화요일~일요일(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09:00~20:00  
전화번호 : 010-8611-3893

고창갯벌 - 심원식당

심원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한 곳으로 1984년에 식당을 열었다고 하니 올해로 40년째. 갯벌처럼 자연스럽게 3대가 함께 이어온 곳이다. 메뉴는 돌솥밥과 생선구이를 메인으로 1인 식사를 위한 영양술밥도 있다. 집 반찬처럼 친근함이 느껴지는 나물과 김치는 주인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단다. 배가 안 꺼진 채로 들렀는데도 어느새 술밥 한 그릇에 누룽지를 훌훌 붙여 가며 먹게 되는 집이다. 주인집과 식당이 이어져 있어, 이른 아침에도 밥상을 내어 주신다고 한다. 심원의 역사와 마음을 품은 심원식당.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가능하다.



주소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198  
영업시간 : 수요일~화요일(매주 목요일 정기휴무), 07:00~20:00  
전화번호 : 063-563-0010 (\*오픈시간은 유동적입니다)

# 고인돌부터 고창읍성까지 시티 투어 버스타고 고창 한 바퀴

글/사진 정종혁 (작가)

동리 신재효와 미당 서정주가 살았던 고창. 한 자리를 수천 년 동안 지켜 온 고인돌들의 오랜 터. 푸르른 물 내음을 머금은 운곡마을의 람사르습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여러모로 은은하고 고즈넉하다. 글과 돌 그리고 물이 있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유명한 전라북도 고창이다. 고창군이 2023년을 ‘고창 방문의 해’로 지정하면서 올해는 고인돌과 운곡람사르습지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의 세계적인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놓칠 수 없는 여행 프로그램 중 하나는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신설된 고창 시티 투어다. 이제 이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한다면 당일치기로도, 차 없이 두 발로도 고창의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다. 고창 시티 투어는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과 군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버스 관광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마다 하루 두 대의 전용 버스가 운영되며 이 시티 투어를 이용하면 고인돌박물관, 운곡람사르습지, 선운산 등 총 여섯 군데의 명소를 약 일곱 시간동안 모두 돌아볼 수 있다. 명소가 많고 지역이 광활한 고창의 특성상 고창 시티 투어는 시내 안팎에 있는 관광지들을 모두 돌아보기 어려운 당일치기 여행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 고창 터미널

(탑승 시간)

1호차 10:00 출발

2호차 12:00 출발

거리가 먼 서울의 경우 조금만 늦어도 오전 중에 운행되는 두 대의 버스를 모두 놓칠 수 있으므로 조금은 여유롭게 고창에 도착하는 게 좋다. 나는 출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미리 도착해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 12시에 출발하는 투어 버스에 올랐다.

- 고창 시티 투어 탑승 요금: 1일권 2,000원 (36개월 미만 무료)

TIP. 탑승 시 기사님께 직접 요금을 지불하니 미리 현금을 챙겨 두는 게 좋다.



## 고인돌박물관

(정차 시간) 30분

1호차: 10:10 도착 (10:40 출발)

2호차: 12:10 도착 (12:40 출발)

모든 탑승객이 승차를 마치면 버스는 코스의 첫 번째 명소인 고인돌박물관으로 이동한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가다 보면 특이한 생김새로도 유명한 바둑판식 고인돌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고인돌을 널리 알리고자 고인돌 박물관 앞자리로 옮겨진 이 계산리 고인돌은 지금까지도 고창을 대표하는 가장 주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을 반기는 고인돌 옆으로 박물관의 매표소와 본관이 있으며 크고 넓은 고인돌공원을 돌아볼 수 있는 모로모로 탐방열차도 볼 수 있다. 아쉽지만 길지 않은 투어 시간으로 인해 이곳 고인돌박물관 코스는 조금 서둘러 돌아봐야만 했다. 올해는 고창 방문의 해로 지정된 만큼, 박물관 관람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어 사실상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내어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운영 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휴관

- 모로모로 열차 이용 요금: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TIP. 박물관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고인돌 유적지 부근을 돌아보기는 어려우니 간단히 박물관을 둘러보고 매표소 근처에 있는 선사마을이나 고인돌교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 운곡람사르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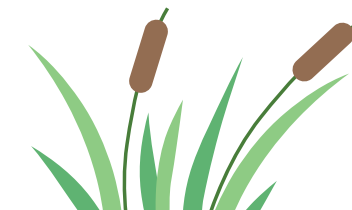
(정차 시간) 1시간

1호차: 10:50 도착 (11:50 출발)

2호차: 12:50 도착 (13:50 출발)

다시 버스에 오르면 그다음 목적지인 운곡람사르습지로 이동한다. 운곡의 습지생태길은 크게 고인돌 유적지 부근의 1코스와 운곡저수지 주변의 2코스로 나뉘는데, 투어 버스는 2코스의 종점이자 탐방열차 탑승이 가능한 친환경주차장 탐방안내소에 정차한다. 내리자마자 보이는 매표소에서 운곡습지생태공원으로 직행하는 탐방열차의 탑승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도보로는 꽤 먼 거리에 있는 만큼 생태공원을 방문하려면 되도록 탐방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다. 참고로 탐방 2코스 전체를 걷는 데는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린다.

나는 투어 버스의 출발 시간을 고려해 안덕제와 운곡서원으로 이어지는 탐방 2코스를 걸어 보기로 했다.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걷는 습지생태길은 경사진 구간이 거의 없고 너비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 주변의 자연 경관을 둘러보며



걷기에 좋았다. 안내소부터 이어진 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면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 내음만 맡을 수 있던 저수지의 은은한 물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일렁이는 윤슬을 바라보며 한참을 걷다 보니 못 본 곳이 많음에도 어느새 출발할 시간이 다 되어 조금 아쉬웠다. 이곳 운곡람사르습지는 운곡저수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으니 긴 시간을 들여 돌아봐도 좋을 듯하다.

[탐방열차(수달열차)]

- 운행 노선: 친환경주차장 탐방안내소 - 운곡저수지 -

운곡습지생태공원 (총 15분 소요)

- 운행 시간: 하절기 10:00~18:00, 동절기 10:00~17:00

- 이용 요금: 초등생 이하 1,000원/ 중학생 이상 2,000원

TIP. 버스를 타고 선운산으로 향하는 길에 생태길에선 보지 못했던 운곡람사르습지의 또 다른 모습을 긴 시간 관찰할 수 있으니 버스의 창밖을 보며 이동하는 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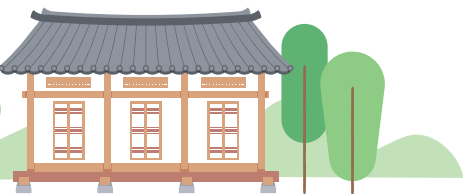
## 선운사

(정차 시간) 2시간

1호차: 12:00 도착 (14:00 출발)

2호차: 14:00 도착 (16:00 출발)

무려 두 시간이나 돌아볼 수 있는 시티 투어의 세 번째 장소는 단풍이 유명한 가을 명소 중 하나인 선운산이다. 이곳 선운산 코스는 버스의 정차지인 선운산도립공원부터 근방의 선운사로 이어진다. 마침 방문한 시기에 '고창북분자와수박축제'가 열리고 있어 도착하자마자 축제를 즐기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마주할 수 있었다. 수박 빨리 먹기 대회가 열리는 중앙 무대뿐 아니라 아이들 전용 물놀이 풀장과 저렴한 가격의 농특산물 장터 부스들도 성황을 이뤘다. 어느새 분위기에 동화된 나 역시도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들고는 기분 좋게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선운사로 가는 길에는 나무 그늘이 넓게 드리워져 있어 다소 무더운 날에도 걷기에 무리가 없었다.



## 상하농원

(정차 시간) 1시간

1호차: 14:30 도착 (15:30 출발)

2호차: 16:30 도착 (17:30 출발)

선운산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다음 장소는 상하농원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건 매일 유업의 상하농원은 직접 재배 중인 각종 농작물들을 비롯해 양과 소, 당나귀 등의 가축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농촌형 테마공원이다.

홀로 걷기에 좋던 이전의 명소들과는 다르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상하농원은 가족이나 연인 단위의 여행객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곳이다. 넓은 들판과 그 위를 뛰노는 가축들은 자연스레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자유롭게 경쾌했다. 특히나 농원 중앙의 들판에 모여 있는 면양 떼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상하농원의 마스코트. 한 시간의 투어 시간 동안 곳곳에 있는 동물 친구들을 모두 만나 보고 농원의 둘레로 이어지는 들길을 걸으며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날이 식은 뒤에 버스에 오르자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문득 실감이 났다.

[상하농원]

- 운영 시간: 매일 09:30~21:00

- 입장 요금: 성인 9,000원, 소인 6,000원

TIP. 특별히 시티 투어 이용자들에게는 입장료 반값은 물론, 농원 상품 구매 시에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니 하차 시에 반드시 잊지 말고 탑승권을 챙기자.



고창읍성으로 가는 길. 어느새 해가 지는 소리가 천천히 들려왔다. 다시 시내로 돌아와야 볼 수 있는 고창읍성은 시티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만큼 거의 여섯 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고창 터미널에서 도보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알찬 당일치기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제격인 장소이기도 했다.

## 고창읍성

(정차 시간) 1호차 1시간 30분, 2호차 1시간

1호차: 16:00 도착 (17:30 출발)

2호차: 18:00 도착 (19:00 출발)

고창의 중심지에 위치한 고창읍성은 시내에 자리해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친근한 산책길이 되어 주고 있었다. 편한 옷차림으로 나와 걷는 이들을 따라 느릿한 성곽으로 진입하면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 위, 고창읍성의 산책로에 오를 수 있다. 겁이 나긴 했지만 올라온 이상 발아래 동네의 모습을 내려다보지 않을 수 없어 작은 용기를 냈다. 성곽 위에서 내려다본 고창의 풍경은 오늘의 여정처럼 그 자체로 한적하고도 고즈넉한 감상을 자아냈다. 길게 늘어지는 어느 오후의 끝에서 마주한 이 고요하면 서도 단단한 광경은 이후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내내 웬지 모를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운영 시간: 05:00~22:00



## 고창 터미널

(도착 시간)

1호차: 17:40

2호차: 19:10

투어 버스는 종착지인 석정온천으로 떠났고 나는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는 시외 버스에 올랐다. 밤이 되어 집에 도착하고 나니, 고창 시티 투어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치 꿈을 꾸 기분이었다.



고창 방문의 해를 기념해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 고창군 주요 관광지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무료 개방"



### 고창읍성

2023년 1월부터  
매일 관람료 전액  
고창사랑상품권 지급

고창읍 읍내리 125-9



### 고인돌박물관

2023년 1월부터  
매일 관람료 전액  
고창사랑상품권 지급

고창읍 도산리 676



### 선운사

입장료 무료

아산면 선운사로 250



# 너와 함께 걷는 여행, 고창

글/사진 유윤정 (콘텐츠에디터·문화기획자)

고창은 지친 눈을 시원하게 할 만큼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산도 높고 들도 넓지요. 자랑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어딜 둘러보아도 초록이 싱그러운 여름, 가족 여행을 떠나 봅니다. 우리 가족, 반려견 먼지와 함께요.

## 라벤더 파도에 풍덩, 청농원

포근한 라벤더 향기가 바람 따라 코끝에 맴돕니다. 향기에 이끌려 걷다 보면 이내 곧 드넓은 보랏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눈부신 햇빛 받으며 피어난 잉글리시 라벤더가 넘실거리며 만들어 내는 보랏빛 절경. 그네에 앉아 4천 평의 라벤더 풍경을 바라보면 ‘이곳이 남프랑스인가?’ 하는 착각도 듭니다. 먼지도 솔솔 피어나는 향기가 좋은가 보아요. 냄새를 맡는 코가 찔룩찔룩 분주합니다. 이국적 풍경을 선사하는 청농원은 팜스테이 관광지입니다. 2만여 평의 넓은 공간에 한옥 숙박, 방갈로 캠핑 등 다양한 숙박 시설부터 라벤더정원, 핑크물리정원, 수국정원, 소나무산책로, 대나무숲길 등 자연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며 라벤더가 내년의 만남을 기약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핑크물리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화사한 분홍 물결이 기대됩니다. 핑크물리가 흐드러질 때쯤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산책하기에 더 좋겠지요. 벌써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 청농원

- 라벤더&핑크물리가든 입장료 5천원(시즌 외 무료입장)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청천길 41-27
- 0507-1330-2936

## 꽃길만 걷게 해줄게, 보리나라 학원농장

향긋한 산책을 마치고 인근 2km를 이동해 보리나라 학원농장으로 향합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메밀꽃밭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에서는 봄에는 청보리, 여름과 가을에는 해바라기와 황화코스모스, 메밀꽃을 만날 수 있어요. 지난 4~5월 청보리 축제에서 본 15만 평의 초록 낙원은 6월이 되자 황금 들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난 들판이 가지런히 빗은 아이의 머리 같아서일까요.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너른 들에는 해바라기와 황화코스모스, 메밀이 이제 곧 자기 차례라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8월이 되면 새파란 하늘 아래 태양을 바라보고 자라는 꽃이 그림처럼 펼쳐질 테지요. 메밀도 하얀 꽃망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요. 사계절 어느 때 가도 늘 새롭고, 함께 걷는 시간 모두 눈부시게 아름답다울, 가족과 함께 추억 담기 좋은 꽃길입니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운곡람사르습지

운곡람사르습지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한때 버려진 폐경지였으나 자연 스스로 생태계를 복원해 현재의 깨끗한 습지가 되어 총 864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탐방안내소에 “반려동물도 함께 습지를 탐방할 수 있는 지?” 여쭙니 “습지에는 야생 동물이 많아 반려견이 공격하거나 공격당할 수 있으니, 목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조심히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당부하셨어요. 무엇보다 반려인으로서 배변 봉투는 필수 지참입니다. 먼지랑 친환경주차장 탐방안내소부터 운곡람사르습지자연생태공원까지 탐방열차가 다니는 3.3km의 길을 걸었어요. 습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 완벽한 손님이 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일부러 귀 기울이지 않아도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마다의 멜로디로 지저귀는 새소리를 구분하다 보면 그 뒤로 풀벌레가 찌르찌르르하고요. 맹꽁이 노래도 정겹습니다. 나무를 올라타는 다람쥐 발톱 소리에 이어서는 까득까득 솔방울 갈라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수련 피어난 저수지에서 들리는 첨벙 소리에 ‘팔뚝만 한 잉어가 뛰어올랐을까? 어쩌면 수달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우리는 잠시 살피 다녀가는 것이지요.



### 보리나라 학원농장

- 무료관람
- 전북 고창군 학원농장길 158-15
- 063-564-9897



### 운곡람사르습지자연생태공원 탐방안내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서원길 15(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
- 063-560-2720~1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걷다 보니 마음마저 차분해집니다. 새로운 냄새 살살이 맡으며 신중히 걷는 반려견과 발맞춰 느긋이 걷다 보면 온몸 모든 감각으로 대자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바다의 숲,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낙조를 보러 람사르고창갯벌센터로 향합니다. 고창갯벌은 고창에 있는 또 하나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바다 냄새가 짙어집니다. 갯벌탐방로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신기하지요. 길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짙내 나는 갯벌이, 오른편에는 모가 자라는 논이 있는 것이 여행자의 눈에는 꽤 놀랍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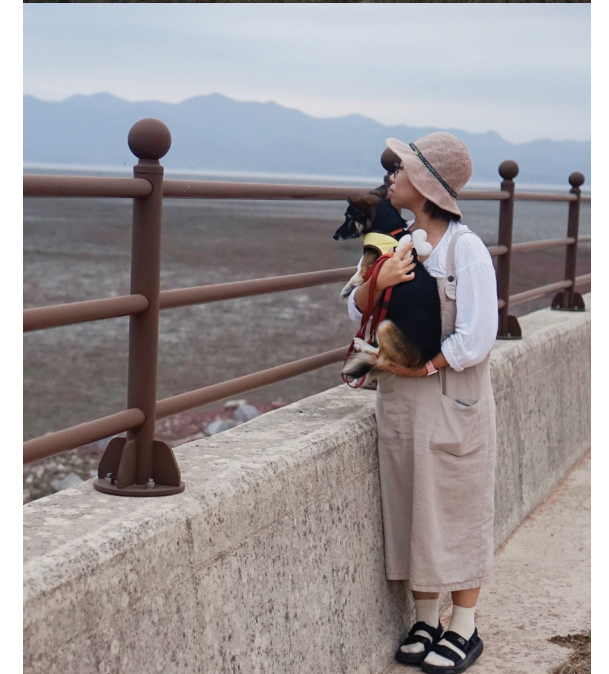
썰물에 드러난 갯벌은 마치 바다의 숲 같습니다. 바닷물 물러간 땅에는 통통마디 같은 염생 식물이 숲을 이루고, 빠져나가던 바닷물이 갯벌에 강줄기를 이루면 집게가 빨간 농계가 구멍마디 나와 호흡합니다. 이곳에서 먼지는 처음으로 계를 가까이서 보았어요. 개와 계의 정상회담이 아닐까 팬스레 웃음이 납니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출발해 갈대공원을 한 바퀴 크게 걸을 수 있는 2.2km 산책길은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반려견 산책길인 ‘눈치보지마시게 길’이기도 합니다. 드넓은 갯벌과 바닷바람에 흠날리는 갈대밭의 조화가 아름다워요. 마침 장끼와 까투리 한 쌍이 갈대밭을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고창갯벌은 멸종 위기를 맞은 철새들이 쉬어 가는 갯벌이기도 합니다.

일몰 시간에 맞추어 가니 갯벌센터는 문을 닫았지만, 운영 시간에는 자전거, 킥보드, 4인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고 해요. 다음 방문에는 자전거를 타고 바닷바람 맞으며 여행하기로 합니다.

먼지와 함께 지도를 펼쳐봅니다. 다음은 어디를 함께 가 볼까요.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도 산수화 같은 고창 풍경을 감상하며 오늘도 고창의 추억 한 페이지를 더합니다.

**TIP.** 반려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가 늘고 있어요. SNS, 블로그 등에 #고창반려견동반식당 #고창반려견동반카페 키워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 591-34  
· 0507-1402-2638



# 고창문화도시 살림, ‘3개월’

글 강정우 (고창문화도시센터 문화진흥팀장)



‘3개월’, 이 단어가 글의 제목이 될 정도로 의미심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창문화도시 팀장으로서의 3개월은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빠르게 일에 몰입하고, 고창의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가 낯선 사람을 만나고,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깊은 생각과 회의를 거치면서,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빠르고도 의미심장한 시간이었다. 이 글을 통해 3개월의 분주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창문화도시 살림의 내일을 준비한다.

## 1개월 : 일의 시작과 낯선 세계

우리는 때때로 도시가 가진 분위기 또는 도시에서 받는 이미지를 마주하면서 그 도시가 가진 매력에 깊이 매료되거나 혹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고창문화도시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몸소 느낀 고창은 전자에 속했다.

외지에서 도착한 고창의 첫인상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면접 길에 보게 된 고창읍성의 모습도 신선했고, 고창까지 내려오며 스쳐 지나갔던 산과 들의 완만한 능선도 기분을 즐겁게 해주었다. 고창 방문 직전에 제주도에서 멋진 풍경을 흠뻑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이 가진 자연의 또 다른 모습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고창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고창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유가 바로 이 생태자원의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지금은 생태환경의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적 성장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풍부한 생태환경과 세계유산을 가진 고창은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문화도시 지정이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문화도시가 되어 갈지, 어떻게 성숙한 문화도시 시민이 되어 갈 것인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 2개월 : 만남과 소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

첫 번째 달이 지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기에 들어설 때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고 소통하기 시작하였다. 고창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사업에서 팀장으로서 마주해야 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인사를 나누고, 만남을 약속하고, 공간에 찾아가면서 분주히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문화도시가 어떤 것인지 고창문화도시센터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월에 새롭게 구성된 팀이지만, 우리는 타 지역의 문화도시센터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며 만남과 소통을 쌓아 나갔다.

앞서 1~3년 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지역 중 호남 지역에 속하는 완주문화도시(2차), 익산문화도시(3차), 목포문화도시(3차)에 찾아가 각 센터의 실무진들과 교류하였다. 타 문화도시 방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며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청하고 고창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거쳤다. 그리고 예비문화도시 단계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나둘 사업을 시작하였다.

## 3개월 : 사업을 설계하고 제안하기

3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문화도시 사업을 파악하고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전의 사업과 유사하



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틀과 구상에서 시작해야 하는 사업도 많다. 그래서 더욱 많은 시간과 활동을 사업에 할애하면서 고창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고창을 거닐고 답사하면서 더 좋은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유문화도시’인 고창이 치유정신과 치유문화를 비전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도시 사업 관계로 만나는 분들로부터 치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다. 고창이 말하고자 하는, 고창이 보여 주고자 하는 치유는 무엇인가? 고창에 잠재되어 발굴해 나가야 할 치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치유문화도시의 모습을 고창군민들에게,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가? 나아가 타 지역의 법정문화도시를 비롯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고창의 치유 정체성을 경험하게 하면서 지역의 문화도시적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답을 찾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둘 사업을 시작하고 고창군민과의 소통의 기회도 늘려 가고 있다. 문화진흥팀은 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과 문화를 통한 지역 혁신, 문화의 연구와 보존, 생태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문화적 발전 방안의 사업을 고민하면서 오늘도 진지하게 고창문화도시의 살림을 가꾸어 가고 있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다.



# GOCHANG CULTURE&TOURISM FOUNDATION 2023 하반기 행사 캘린더

August 08		
6월~10월(매주 토요일)		거리문화공연 <유랑버스킹>
6월~12월		고창문화도시 시민연구모임 문화대장간
6월 23일(금)~8월 31일(목)		고창100년학교 연구용역
7월~8월	관외 관광객	여행가는달 연계 전북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7월~9월	초등학생 4학년~중학생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7월 10일(월)~8월 28일(월)		문화디자인스쿨[기초]
7월 13일(목)~9월 30일(토)		아이디어 공모전 브랜딩 워크숍
8월 1일(화)~8월 12일(토)	고창읍성, 선운사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영외활동
8월 12일(토) 18:00	동호해수욕장	동호해변가요제
8월 23일~9월 20일	영선중학교	고창 유네스코 유산 아카데미
8월 26일(토)~8월 27일(일)	고창농산물유통센터	해풍고추축제
8월~9월		유네스코 유산 및 생물권 탐방 프로그램 전문 해설사 양성사업
8월~9월	할머니, 청년	지역문화전문인력활동지원 프로젝트 '할매니얼'
8월~11월		고창문화도시 아카이브 (예정)
8월~12월		고창100년학교 콘텐츠 발굴 (예정)
8월~12월		고창100년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예정)

September 09		
9월 18일(월)	고창읍면 초등학생 300명	찾아가는 소리축제 고창 - 월드뮤직 워크숍
9월~10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 프로그램
9월~10월 중	고인돌공원	고인돌미디어아트
9월~10월		문화디자인스쿨[심화] (예정)
9월~11월	여행사 및 언론기자 등	7가지 보물 팸투어
October 10		
10월 19일(목)~10월 23일(월)	고창읍성잔디광장일원	고창모양성제
10월 19일(목)~10월 23일(월)	모양성제 방문 관광객	고창지역관광협의회 오프라인 홍보 행사 (모양성제)
10월 말~11월 초		고창 치유문화도시 축제 (예정)
Throughout The Year 2023 장기프로젝트		
3월~11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시민추진단	문화현장 시민추진단 운영
	문화예술인	치유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제안공모대상자	시민공론장/시민포럼 운영
	시민추진단 /고창문화민회준비위원	고창문화민회 운영
	시민정책패널	시민정책패널 운영
	문화예술인(단체)	치유문화컨퍼런스 개최
	문화예술인(단체)	컬처체인정례화모임 운영
	문화예술인	치유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성과 공유



## 고창문화관광재단,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전국 우수사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영예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전국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가 전주팔복예술공장에서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관으로 3일간 열렸다. 첫날 개막식에서 회원단체 117개 중에서 공모에 참여한 37개 재단 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창의적 도전 분야에서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심사 총평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음직한 유사 사례가 아닌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는데, 이는 문화협치 분야에서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책마을해리가 찰떡 공조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결과이다.

2022년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책마을해리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한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지구를 살리는 고창청소년생태예술제’를 진행했다. 고창청소년생태예술제는 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생태예술가의 성장을 꿈꾸고, 한 분야의 뛰어난 영재가 아닌 다양한 사물과 지식을 융합하는 문화영재를 꿈꾸는 사업으로 기획 및 진행되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고창군의 인문공간 책마을해리



와 생태공간 고창갯벌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세계유산도시 고창만이 가질 수 있는 생태 콘텐츠의 힘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책마을해리의 문화협치는 2023년에도 ‘예술로 지구회생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계속 진행된다. 앞으로도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발굴하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와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기 향기가 참 좋다개~  
- <너와 함께 걷는 여행, 고창> 중에서

